

## 대형마트, 지역자금 짹쓸어간다

유통망 장악 역외유출 부채질…지역상권 초토화

광주 5년새 매출증가율 7대도시 최고

불공정 행위 일쑤…지역 공헌은 미미

기획시리즈 ▶8면

대형마트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과 지역상권 붕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판매시설의 다양화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를 고사시킨다는 점에서 역효과가 크다.

지역 유통망을 장악한 '공룡마트'들의 제조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 2007년 353개였던 SSM이 올해 802개로 두 배 이상 급속도로 늘어나는 동안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45% 이상 급감하고 2만개 이상의 슈퍼가 문을 닫았다. 또한 이를 전체자영자의 80% 정도가 월수입이 103만원 미만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달 국감에서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에 대한 대안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51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불공정거래 1위 업체로 꼽혔으며 삼성스토어 19개 분야, 신세계 이마트는 17개 분야에서 신고를 받아 각각 2위와 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대형마트 PB제품의 이물질사고, 부작합 수도 늘어나는 등 대형마트의 문제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물품구입과 공동, 서비스, 음식 등 대형마트들이 점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 또한 지역업체의 배제된 채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근 소규모 상권은 고사될

면치 못한다. 광주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서 소규모 상권이 몰락할 경우 실업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유통업체가 주장하는 고용창출 효과보다 중소유통업체 종사자의 실업문제가 1.8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가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이를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액은 1조2597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6873억원으로 5년 사이 4275억원(33.9%)이 늘면서 대형 유통업체(3000㎡ 이상) 매출 증가율이 전국 7대 도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도시의 최근 5년간 대형 유통업체 매출증가율은 광주에 이어 서울 31.0%, 부산 25.5%, 인천 25.2%, 울산 21.5%, 대전 12.9% 대구 1.5% 순이었다.

이들 대형마트들이(현지 법인인 광주신세계는 제외) 지역에서 올리는 매출은 매년 1조원이 넘지만 이들이 2007년 이후 자자체에 낸 지방세(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포함)는 매년 평균 롯데쇼핑 및 롯데마트가 31억원, 신세계 이마트가 46억원, 삼성스토어는 2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업체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이윤만을 추구하며 사회적 윤리와 지역 환경 등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다면 결국 자신도 살 자리가 없게 된다. 때문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겨울 채비 모래주머니

겨울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8일 광주시 소태동 남광주 고가 근처에 눈길용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동구는 오는 11일까지 10개 노선에 모래주머니 4245포를 준비해 둘 계획이다.

/이민기자 mjna@kwangju.co.kr

###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편지 스페셜 - 헤딩지리행, 추어행, 육개장  
▪ 특선해물부페 - 35,000

특 병 맛 이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웨딩파티 할인 속박권 증정  
• 풀진자: 속박권증정 및 퍼카지 할인

칠순연·각종 새미나(네·중·소연회장 완비)

히딩크 관광호텔

예약문의 ☎ 062-227-8500

www.hiddinkhotel.com

###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가 군원서 접수

각대학원 월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광주바이블칼리지신(편)입생 추가 모집

### 교수진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협력
1	이 환 수 (이사장)	철학	미국 리노이대학 졸업, 5.18 폭동 참사·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권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학장	신약/선교학	서울대 졸업, 미국 Fuller대(석,박사), 이화여대, 종신대, 숭실대, 고신대 강사, 광신대 교수역임, 한국복음주의신교학회장, 한국신학자 회수수학술대상수상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국원대학교(학자), 미국볼리스풀대학교(석사), 미국풀리비아대학(Ph.D.), 미국볼리안센터(연구원), 미국풀리신학대학원(연구원), 충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 대표
4	윤영혁	조직/신학	충신대학교(M.Div.), 미South Western 대학교(Th.M), Regent 대학교 조직신학(Th.D) 전남대학교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전남대학교 강사,
5	김명호	구약학	이스라엘 하브리 대학교 고려동아대(Ph.D.), 광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임,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란감리신학대학(박사과정),
6	전원호	신약학	독일 보레한인교대 담임, 베기에스보위설한인교대(Ph.D.), 전남대학교 구약학 교수임,
7	조태익 (교육실장)	구약학	조선대학교(영문학 학자, 석사, 박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8	임영	선교·영어	한국성신대학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국ITS 목회대학원(박사과정), 한국미국교육원 교수, (원)세계복음사업원 원장, 한국사회교육원 중앙COT 강사, 치유훈련 원장, (원)남양주 부천초장교회 담임
9	김은령	실천신학	충신대학교(M.Div.), 충신대학교(조직신학 Ph.D.)박워, (원)남양주 목회대학원 담임
10	고경태	조직신학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신남도립대학교 교수
11	신동구	실천신학	한국립공과대학교(석사), 전남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원)구원의교회 담임
12	김봉진	윤리학	호남신대학교, 장로회신대원(M.Div.), 호남신대(Th.M), 장로회신대원(Th.D.)담당교수, 장로회신대원(Th.D.) 담당교수
13	손순웅	사회복지학	전남대학교(석사), 전남대학교(박사), 신남도립대학교 교수
14	정현필 (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립공과대학교(석사), 전남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원)구원의교회 담임
15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원)구원의교회 담임
16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원)구원의교회 담임
17	김원식	교회 음악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원)구원의교회 담임
18	이길수	부흥 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졸업, 예수교도단(YWAM)DTS훈련강사, 새물결신교부회장, 강사, (원)광주예학교회 담임
19	진찬환	기독교 교육	개신대학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기신학교수

### 세린사회 교 육 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템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 F1 건설비 1000억원 추가부담

상당액 혈세로 충당…카보·전남도 암이한 관리 비난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건설 비용으로 애초보다 무려 1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증액된 사업비가 전체 건설공사 공사비(3400억원)의 3분의 1에 이르는데, 상당액을 국·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점에서 부실한 사전 검토·심사 기능 및 미숙한 공정 관리, 국제 자동차경주연맹(FIA)측의 무리한 요구가 어우러져 아까운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도 F1지원본부는 9일 열리는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영암 경주장 건설사업비가 애초 사업비(3400억원) 외에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

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증액된 공사비 가운데 300억원은 국비로 지원받되 나머지 700억원은 전남도와 민간 기업인 KAVO가 협의해 짚어야겠다는 계획이다. F1 경주장 건설사업비는 애초 3400억원으로, 국가와 전남도가 880억원씩 176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640억원은 민자 사업자가 부담해 추진했다.

전남도는 여기에 내년 대회 운영비(680억원) 중 국비 지원액(204억원)을 제외한 476억원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방재 발행 등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늦은 추가 사업비까지 떠안게 되면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경주장 건설·지원을 맡은 KA VO와 전남도의 안일한 업무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주장 건설 과정의 치밀하지 못한 공정 관리에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측의 무리한 요구까지 겹쳐면서 결국 주민 혈세로 축내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도 F1지원단은 경주장 건설 추가 공사비 외에 올해 확보하지 못한 국비 미확보분 352억원, 경주장 건설에 소요된 추가 공사비 300억원, 내년 대회를 위한 운영비 204억원 등 모두 856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dok2000@kwangju.co.kr

## 政-檢 '청목회 수사' 정면충돌 양상

### 야5당 "소환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민주당 등 5당이 검찰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또 민주당이 검찰의 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 소환 방침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하자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 대표 회담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후원회 사무국장, 보좌관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님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낮 박희태 국회 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풀점을 찾지 못했다.

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을 금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로 방침을 정하고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하나님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 중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정을 연기 하자며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권 의원 측은 "해명할 자료가 충분해 9일 검찰에 나가 당당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 대표 회담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후원회 사무국장, 보좌관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